

환대를 찾아서

누가복음 4 장 16 - 20 절

1. 습관의 중요성

언젠가 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오락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 아이들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헌데 아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신이 게임을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특히 테트리스라는 게임의 경우에는 기계에 기록된 최고점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이라 기계 자체가 낯설었는데, 막상 의자에 앉으니까 몸이 알아서 반응을 했답니다. 소싯적에 했던 테트리스 실력이 바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청소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가 버스 종점 근처에 위치했고, 그 근처에는 오락실이 있었답니다. 당시 버스가 50 분 간격으로 운행을 했는데, 한 대를 그냥 보내고 남은 50 분동안 50 원짜리 동전으로 테트리스 게임을 격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특히 몸으로 익힌 습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몸은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 역시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습관적인, 지루한, 따분한, 그런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에 복음의 참된 의미가 각인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몸이 복음을 기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2. 환대를 찾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 습관이라고 하면, 흔히들 주일 성수, 봉헌, 기도, 성경 읽기와 같은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신앙 습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다른 신앙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환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뉴라이프 세 번째 시간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환대야말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머리 뿐만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할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습관을 기르고, 주일 예배의 습관을 익히고, 봉헌의 습관을 배우고, 성경 읽기의 습관을 익히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것이 뭘까요?

국어사전에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환대란 내가 잘 아는 친구나 지인을 환영하며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헌데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이걸 뛰어넘습니다. 내 친구나 친족이 아닌, **아주 낯선 타자를 환영하는 것이 성경적 환대**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 장에 보면, 아브람이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게 성경이 들려주는 환대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헌데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환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낯선 이들을 환대 하셔서 자기

3. 뉴라이프 - 환대를 찾아서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다른 이들을 환대하도록 요구하는 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4 장 18 절과 19 절에 잘 나타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 장을 인용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19 절의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땅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는 말이지요.

헌데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흔히 "은혜"로 알고 있는 **"카리스"**(charis)가 아닙니다. **"데크토스"**(dektos)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환대" 혹은 "환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환영의 해" "환대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진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환대이며, 다른 말로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3. 뉴라이프 - 환대를 찾아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까요?

하나님께서 친근한 대상, 예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낯선 존재들을 환대하셨다는 점입니다. 외인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입니다. 외인들입니다. 마음으로 멀리하고 싶은 존재란 말이죠. 헌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게 환대입니다. 곧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복음의 핵심에는 환대가 있습니다.

3. 식탁의 기적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환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자,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환대를 맛보았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환대의 가장 분명한 현상이 바로 **식탁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식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종종 먹던 묵은지와 신 김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땅속에 3년씩 묵혀 두었던 묵은지를 꺼내다가 찌개를 끓여서 내주시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시골집에는 김치를 보관하는 땅굴이 있었는데, 거기서 잘 익은 열무김치를 꺼내서 국수를 말아 먹으면 그저 황홀합니다. **저는 지금도 묵은지 김치찌개랑 열무 국수가 무조건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 어떤 비싼 음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은지와 신 김치에 대한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사람들의 따스한 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들은 좋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3. 뉴라이프 - 환대를 찾아서

잠언 17 장 1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랑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친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만, 이상하고 불쾌한 사람들과 식사했던 것은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고대 세계에서는 같이 식사를 해야 할 사람과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잘 구별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 현자 벤 시라는 집회서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 집에 아무나 초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교활한 속임수가 많기 때문이다. 외인들을 네 집으로 영접하면 그들이 네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너는 네 가족에게 외인이 될 것이다. (집회서 11:29, 34)

여기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가진 독특함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기존의 상식이나 가르침과 맞지 않는 파격적인 식사 교제**를 하십니다. 심지어 당대에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세리들과 나눈 식사는 5 장과 19 장에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이외에도 죄가 많은 여인(7:36-50), 두 여인(10:38-42), 가난한 사람들과 부정한 자들(9:11-17)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5 장 30 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 즉 하나님의 환대의 해가 정말로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지도 않고, 지위도 낮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환대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는 성찬의 식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나누시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라고 하십니다.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잔을 마시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의 식탁에서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합니다. 본래 본질상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외인인데, 낯선 죄인인데, 별 볼 일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시는 환대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4. 성찬의 또 다른 의미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누가복음 22 장 29 절과 30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 뉴라이프 - 환대를 찾아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나라를 맡길테니 잘 다스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라를 맡긴다” 혹은 “다스린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구현하셨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도 되지 않는 환대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이나 여인들이나 부정한 자들까지도 기꺼이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나라를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환대하시고 식탁에 초청을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구현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낯선 이들을 향해 환대함으로, 식탁을 개방함으로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본래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환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남을 환대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나라의 사역입니다.

3. 뉴라이프 - 환대를 찾아서

이게 성찬에 참여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교회의 소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와 구원, 31 쪽)

우리 사회는 점점 두려워하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고, 언제나 적이 갑자기 나타나 침입해 들어와서 해를 입히리라고 예상하면서 자기 주위의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적을 손님으로 바꾸고 형제애와 자매애가 형성되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공간을 만들어 낼 소명이 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환대의 정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는 환대의 습관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오히려 증오와 혐오 그리고 미움의 습관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사회에는 외국인에 대한 많은 차별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빼놓아진 시선이 있고, 노숙자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고, 인종차별이 상당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기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타종교를 무시하고, 심지어 절에 몰래 침입하여 불상을 파괴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적대적인 행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나같은 죄인을 환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다른 죄인들, 다른 타인들, 다른 별 볼 일없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환대를 흘려 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뉴라이프 - 환대를 찾아서

헨리나우웬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교회는 적대감을 환대로 바꿀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탈북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환대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환대의 사명입니다.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할 사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우리에게 환대의 복음으로 하나님나라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환대를 따라 아름답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